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24)

1.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 관련

□ [동향]¹⁾

- ‘한일 경제인 회의’는 한일 양국 기업 총수들이 무역 및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협의체로, 1969년부터 매년 개최
- 2019년에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개최가 연기되었으나, 양국 경제계는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9월 24,25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일본에서는 자동차, 종합상사, 화학 제조업체 경영진 등 약 100명이 참석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언론은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한일 관계가 엄격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간 차원에서 협력 및 교류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하였다고 보도²⁾
- 일본 측 대표인 사사키(佐々木) 한일경제협회장은 “지금까지 양국이 구축해 온 호혜적, 양호한 경제 관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공유하고 싶다”고 발언함.

2. 한국 국회의장과 일본 전 관방장관의 회담 관련

□ [일본 언론 동향]³⁾

- 자민당의 가와무라(河村) 전 관방장관이 24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담

1) 「きょうから「日韓経済人会議」日韓関係悪化の中 民間の協力は」 『NHK NEWS WEB』 (2019. 9. 24).

2) 「日韓経済人会議」開会 両国代表が民間交流の重要性訴える」 『NHK NEWS WEB』 (2019. 9. 24).

3) 「河村元官房長官、韓国・文議長と会談へ」 『産経新聞』 (2019. 9. 24).

-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현재 한일의원연맹간사장을 맡고 있음.
- 일본 언론은 회답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양자 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망

3. 해상자위대 관함식의 한국 불참 관련⁴⁾

□ [동향]

- 한국 국방부는 24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10월에 개최하는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
- 자위대 관함식은 3년에 1회 개최되며, 한국군은 2002년과 2015년에 참가한 바 있음.
- 한국 국방부는 불참 이유가 초청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음.⁵⁾
- 관함식과 관련, 2018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가 육일기를 범선에 게양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위대 참여가 보류된 선례가 존재
-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내에서는 한국군을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보류되었다고 NHK가 보도

□ [일본 언론 동향]⁶⁾

-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등 안전보장상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국 방위당국 간 협력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

4) 「韓国軍 「招待されていない」海上自衛隊観艦式に参加せず」 『NHK NEWS WEB』 (2019. 9. 24).

5) 「요미우리 “내달 日 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불참 정식 결정”」 『SBS NEWS』 (2019. 9. 24).

6) 「海自観艦式、韓国は不参加。」 『日本経済新聞』 (2019. 9. 24). 및 각주 3의 NHK

4. 미일 국무장관 전화 회담 관련

□ [동향]⁷⁾

- 고노(河野) 방위장관은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과 전화로 회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

7) 「 日米防衛相 就任後初の電話会談 日米韓の連携重要で一致」 『NHK NEWS WEB』 (2019. 9. 24).